

지난 7월 26일,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속에 로케트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전승절정축전야에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이었다.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진행한 발사훈련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절을 맞으며 러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파도 같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7월의 하늘가에 울린 폭음, 그 메아리는 대단히 크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군사분계선 가까운 최전방에서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폭음이 들리고있다. 그 폭음은 날이 갈수록 군사분계선을 향해 차츰 남하하고있다.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 전진배치된 주 〈한〉 미국군과 〈한국〉 군의 귀에 폭음이 차츰 가까이 들려오는데도 그들은 짐짓 못들은척 어물쩍 넘어갔지만 그들의 그런 무반응이야말로 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경에 이르렀는지 말해주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은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과 인민군대의 무적강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 군대도 《유일초대국》으로

## 7월의 하늘가에 울린 장쾌한 포성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자처하는 미군을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한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와 로케트발사 훈련을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

게 걸고들면서 그를 구실로 저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력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올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광고하고 그 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준엄한 정세속에서 단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대한 타격훈련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감히 유린하고 통략하려는자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는 천출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면모를 온 세상에 파시한 역사적인 장거였다.

전승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에서는 만약 미국이 핵항공모함

과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러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약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미국방성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널려있는 군사기지들과 미국의 대도시들을 향하여 핵탄두로켓들을 발사하

게 될것이라는 멸적의 선언이 울려나왔다.

불의의 횡포에 정의의 힘으로 맞서고 역사적으로 승리만을 이룩해온것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 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치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쳐 죽여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법칙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이다. 대대로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리만을 이룩하는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전통이며 그로 하여 수치와 패배, 멸망의 구렁렁이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미국의 운명인것이다.

전승절을 앞두고 7월의 하늘가에 울린 폭음, 그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대결을 끝장내고 61년전의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명말을 선고할 새 세기승리의 7.27로 출기차게 이어갈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기상을 시위한 승리자들의 선언이었다.

본사기자 김 강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인 1950년 여름 서울에 얼마동안 머무르며 남반부의 해방구사업을 지도하신데 대해 추억하시였다.

그이의 회고는 길지 않다. 그러나 불과 불이 오가는 최전방에서 군사작전지휘만이 아니라 남반동로들의 생활상안정을 넘겨하시고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 대한 이야기는 7.27전승의 력사적사건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해방된 서울을 찾으신 어느날 수령님께서 들리신 곳은 《경무대》였다. 1920년대에 세워져 력대 일제총독이 들어앉아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악마의 소굴, 해방후에는 미군정장관과 매국역적이 틀고앉아 있는 복막전이었다. 그곳을 찾으시고 스무해세월 화부로 일한 50대의 한 로동자를 만나신 수령님께서도 얼마간 고생이 많았겠는가고 하시며 가정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식구가 많아 교생이 클거

라고 하시며 그에게 쌀을 보내주도록 조치하시고 자신의 점심상까지 들려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서울과 수안보 등 최전선에 위치한 전선사령부를 여러 차례 찾으시여 대전해방작전과 같은 전술적명안을 가르쳐주시는 긴박하고 바쁘신 속에서도 의정부를 비롯한 해방된 지역들에서의 민주개혁실행정형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장운영문제, 서울시민들의 식량과 화목, 겨울 용남새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전선으로 가시는 길에 한 농가에 들리시였다. 집안벽면에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앉아온 집주인은 너무도 불시에 그이를 뵈옵게 된 꿈같은 현실앞에서 몸둘바를 몰라라다 방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인사말을 올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날도 더운데 여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토방우에 앉으시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

였다.

어느사이에 사립문안으로 줄줄이 들어선 동네사람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백성이라고 하시고는 토지개혁실행도 알아보시고 분여받은 땅을 잘 다루고 농사지을 방법도 가르쳐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백성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려 담화를 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은 한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 성품을 지니신 인민적형수의 출중한 모습으로 남녘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 청계천가의 빈민촌을 돌아보시며 시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니 시민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강을 건너시면서도 그들의 과거사와 마울형편에 대해서도 자초지종 다 알아보시며 명령된 그들의 생활처지를 넘려하신 수령님이시였다.

남 조선인민들을 위하

수령님의 동포애적조치에 의하여 8월의 그 여름날에 공화국남반부지역에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어 공화국북반부와 동일한 비율의 현물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여유농산물은 자유로이 처분할수 있는 혜택이 차례졌고 로동법령의 실시로 남녘의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이 8시간로동제와 로동보호 및 사회보험제 등을 보장받으며 굴욕과 수난에 찌던 어두운 세월을 밀어내고 광명의 새 생활과 보람찬 삶을 향유하게 되었다.

남녘동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에 실생활을 통해 수령님의 위인상과 그이의 보살핌이 깃든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눈물겹게 체험하였고 그이께서 열어주신 진정한 삶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때부로 절감하였다. 그때 서울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은 《땅을 가지려던 평생소원이 풀려 감격한 농민들이 토지

개혁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김일성장군님께 보낸것이 지난 2일간에 3천여통에 달한다.》고 전하였다.

불비쏟아지는 준엄한 전선에 포화축을 헤치시고 최전방을 시찰하시며 조국수호자들에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적후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솜옷을 보내주시고 1211고지의 용사들에게 더운밥과 국을 쏴여먹이고 풍나물도 길러 먹이도록 하신 위대한 령장의 그 사랑, 전선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전방의 적후상치로제를 실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그 사랑이 그대로 남녘인민들에게도 미치였다.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마음과 보살핌속에 언제나 남녘겨레가 있었다는것을 50년 여름날의 이야기가 다시금 전하여주고 있다.

곽 창호

오성산. 이 말에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 사생결단의 전선길을 걸으신 위대한 령장에 대한 고귀한 추억이 실려여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공화국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던 준엄한 나날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장군님의 모습은 야전복을 입으시고 오성산으로 오시는 모습이였다.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하는 한 우리 인민은 자국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주제87(1998)년 8월 어느

## 한 해외동포의 전장을 넘려하시어

주제79(199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국을 방문한 재조동포(당시)들을 만나시였다. 그들속에는 재조조선인로병회고문으로 활동한 박영빈도 있었다.

그날 조선인로병들을 반기기 맞으신 수령님께서는 부인들은 다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며 조선말은 아는가 등 안부를 물으시고 생활형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여러분들은 해방후 조국명우에 공화국을 세우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피로써 우리 혁명의 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고 하시면서 준엄했던 력사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으시였다.

그 자리에서 박영빈동포는 자기들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

도 알려주신 그이께서는 그에게 제일 적합한 운동용실내자전거를 배려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박영빈동포는 마슈켄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 운동기구를 정비다루면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건강관리에 리용하였다.

그는 생전에 고국에서 살며 일해온 나날을 외우곤 하면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 정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성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운몽으로 느꼈다.》고 리봉군 하였다.

그는 1998년 5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전선전력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의 승리의 환호성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이 울릴 것이다

### 국 제 사 회 계 의 반 향

국제사회계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전승의 력사,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력사가 선군조선의 태양이시고 모든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세기를 이어 꽃잎이 이어지리라 고 굳게 확신하고있다.

조선통일지지 구부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세계에 보여준 력사적인 사건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3년간의 가철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주의로 미제를 타승하였다. 미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패하였다고 말하였다.

영국조선전선협회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미제는 내리막길에, 세계반제민주해방운동은 양강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융감히 싸운

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성명하였다.

로씨아신문 《올라지보스도크》는 조선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미대결전의 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의 력사이다.

60여년전 조선의 승리의 환호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이 울리고있다.

유감스러운것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에 미쳐달뼉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조선의 력사에 새로운 승리의 한해지를 또다시 기록하게 할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첫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패배를 모른다고 호

언장담하던 미제를 타승하였다.

오늘 조선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핵보유국으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배루 김일성-김정일주요인구소조 위원장은 7월 27일은 세계반제자주력량이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해야 할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1950년대의 쓰디쓴 참대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지만 백두산절세위인의 선군령도밑에 전진하는 조선을 절대로 당하지 못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난공불락의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미제와의 싸움에서 제2, 제3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교훈을 잊고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의 하나로 만들어왔다.

미국이 끊임없이 일으킨 정치군사적도발로 하여 이 지역의 정세는 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례외없이 미국의 패배를 다시 말하여 조선인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곤 하였다.

만약 미국이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이번에는 항복서에 도장찍을 놀도 남지 않게 모조리 소탕해버리겠다는 것이 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은 빈말을 모르는 나라이다.

60여년전 미국에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안긴 조선은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력사적종말을 가져올것이다.

본사기자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칼바람길